



그림책은 내 친구 028

지름길

독 후 활동지



도널드 크루스 글·그림 / 이주희 옮김

칼데콧 아너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작가 도널드 크루스의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 아름답게 공들여 만든 책.

집까지 지름길로 걸어가기로 한 아이들이 겪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고작 몇 개의 문단으로 솜씨 좋게 그려 낸다.

활동 목표

1.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연결시킬 수 있다.
2. 글과 그림을 통해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3.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요.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등장인물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

제목과 그림을 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세요.

◎ 내용 이해

☞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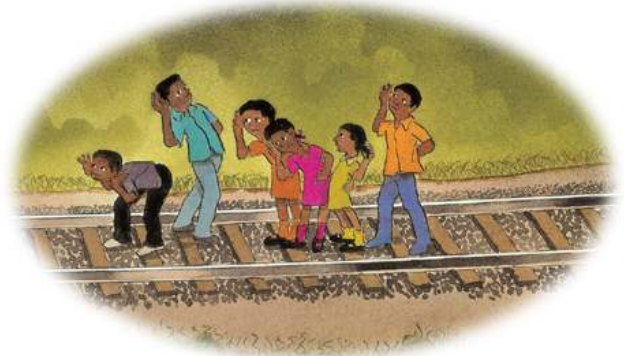
우리는 큰길로만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이 늦었고
()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기차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기차길은 독길로 이어졌어요.
가파른 비탈은 () 덩불로
덮여 있었어요. 아래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 우글거릴 것 같았어요.



“기차 소리다!”
모두들 ()을 멈췄어요.
모두들 ()를 기울였어요.



기차가 지나갔어요.
모두 무사했어요.
우리는 다시 기차길로 올라갔어요.
서둘러 ()으로 돌아가
()로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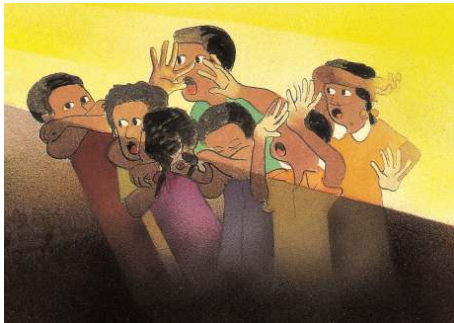
◎ 주제 이해

☞ 글과 그림을 통해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아보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소리쳤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
큰길과 만나는 건널목을
그냥 지나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위험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다.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느낌에 더욱 신나서 장난을 쳤다.



우리는 기차길에서 가파른
비탈로 뛰어내렸어요.
짙레 덩불이나 밤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기차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 아이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위험한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리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어 보세요. 없다면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어 보세요.

☞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전해 보세요.

A large, light purple rounded rectangle with a dashed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etter.

